

소기업운동과 산업생태계 복원

박판영(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소기업이 지닌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의 노력과 소기업 운동과의 연계를 통한 한계 극복, 대기업과의 건전한 협력관계 구축,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도 소기업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마치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 속에서 마른 뿌리로 가늘 뜬 생명을 키우다가 봄이 되어 새싹이 돌아나듯 소기업의 소생을 알리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통제체제에서 민주주의 자율체제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세계는 개방화, 다양화, 세계화 체제로 개편되고 있으며 산업기술은 지식정보 혁명을 지속화하고 있다.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국가경제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횡포가 빚어낸 산업생태계 파괴는 국가경제의 총체적 파탄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 풀뿌리 소기업의 활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생태계의 복원만이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자생력을 가질 수 없다.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기업가적 도덕 의식과 영특한 창의력, 구성원의 공동체적 참여와 조직몰입, 문화지향적이고 토착적인 기업문화, 전문화, 차별화와 집중화, 지역사회와의 높은 밀착성과 고용증대 및 환경친화적 기업활동 등 소기업이 지니는 강점은 새로운 산업환경이 요구하는 생존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소기업 운동은 기업규모의 거대화과 독과점에 의한 시장 실패, 정경유착과 특혜에 의한 경제정의의 파괴 등 산업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윤리적이고 생태문화적인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이라 할 수 있다.

소기업과 대기업은 제품생산과정에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상호협력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기업은 기업규모면에서 작을 뿐만 아니라 소유주에 의한 자금조달과 경영, 비독점적 지역시장활동, 기업가적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한 무한책임, 전문성과 독특한 기술 및 노하우 등 대기업과 구분되는 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건전한 산업생태계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기업을 흡수할 경우 비용 증대와 생산기술 및 제품시장의 차별성 상실로 획일화에 의한 산업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증대와 산업의 경쟁력 상실 및 소비자 욕구예의 부응 실패로 커다란 사회적 재앙과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의 현실에는 소기업과 대기업간에 많은 불평등한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지배 종속의 불건전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요 및 공급 독점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권력의 남용으로 소기업에 일방적인 불평등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여 자본의 무한증식을 기도함으로써 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흡수 합병하는 재앙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다수 대기업들은 수많은 유망 중소기업의 흡수 합병과 도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산업생태계의 파괴 혼란과 총체적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사회적 고통과 희생을 초래하였다.

지난 시기 정부 정책도 재벌기업을 주축으로 압축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 독과점, 경제력 집중, 기업풍토의 왜곡,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가치관의 전도 등 온갖 사회악의 온상을 제공하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라 하여 국가경제를 무분별한 자본의 논리에 방임할 수 없으며, 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대기업에 의한 산업생태계 파괴의 방지를 위해 정부의 효과적 개입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법 제도나 정책 및 관행에 있어 소기업에 대한 보호나 지원은 극히 부족한 반면 대기업에 대한 우대와 그들의 막강한 기업권력이 상존하여 공정한 경쟁질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생관계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연생태계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고유한 영역과 생존전략을 갖고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진화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업생태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기업과 대기업이 고유한 사업영역을 갖고 독특하고 다양한 경영전략과 기업문화를 지니면서 활동할 때 산업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고 안정되게 공생하여 진화 발전할 수 있다. 소기업은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소기업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경제를 안정시킨다.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미국 경제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소기업들의 적응능력에 힘입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소기업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충족에 기여한다. 소득, 연령, 가치관 및 환경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하며, 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 디자인, 가격, 서비스 등의 다양성이 요구되는데, 소기업이 이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로 소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담당자로서 지역적 불균형의 시정에 기여한다. 대기업 중심으로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연되고 사업간 불균형이 나타나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이 저해된다.

넷째로 소기업은 사회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소기업 경영자는 사회의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이들을 보호, 육성하지 않을 경우 계층분화의 양극화로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다섯째로 소기업은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보고로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바탕이 된다. 소기업은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에 있어 무한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과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고 있다. 대기업 규모의 경제와 마케팅 능력은 튼튼한 소기업과의 협력관계 없이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을 뿐이다.

여섯째로 소기업은 경제정의와 산업민주화에 기여한다. 기업 규모의 거대화는 필연적으로 조직의 관료화와 독과점 및 특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 경제정의와 산업민주화를 해칠 위험이 높다. 이에 반하여 소기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유대와 응집력을 바탕으로 참여적 경영을 하며 독점이나 특혜의 소지가 없는 공정경쟁의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일곱째로 소기업은 환경 친화적이고 노동집약적이며 지역공동체적 기업특성으로 고용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소기업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기업이 하나가 되는 기업이다. 지역 사회복합체를 실현함으로써 공해, 노인, 실업, 교육문제 등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들을 함께 인식하고 그 해결에 동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슈마허의 지적은 소기업의 장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덟째로 소기업은 경기변동의 위험을 분산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기변동은 항상 존재하며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경제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인 튼튼한 소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동남아시아를 휩쓴 2년 전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튼튼한 소기업 중심의 대만경제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지속적

성장을 실현한 것이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소기업 운동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시기 거대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에 눌러 질식 상태에 있던 소기업들이 이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체제의 효과적인 극복도 그 구체적 내용은 소기업의 약진과 산업생태계의 복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의 국민 경제적 공헌에 비해 그들이 받는 사회적, 정책적 대우는 아직도 극히 미약하다. 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존립기반과 권익보호를 위해 연대한다. 그럼으로써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정책과 각종 제도 개선에 관하여 정당한 발언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소기업 운동은 결국 튼튼한 국민경제와 건강한 산업생태계 보전 및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혁명의 일환이다.

소기업 스스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소유주의 독단적 경영이나 기술수준의 낙후성, 경영혁신 및 신제품 개발 노력이나 마케팅 능력의 한계 등은 소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소기업문제는 본질적으로 개별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소기업 전체의 공동 문제이며 나아가서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 소기업 운동과 연대를 통한 한계 극복, 대기업과의 건전한 협력관계 구축, 산학협동,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 노력의 결집이 요구된다. 특히 소기업들 스스로 대기업식의 경영을 선망하고 모방하는 데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기업 특유의 특성과 국민 경제적 역할에 바탕을 둔 정체성과 경영철학을 확고히 정립하고 전문화와 집중화 및 차별화의 고유영역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의 핵심과제가 생태문화적 국민경제와 공동체적 경영응집력이 되고 있음은 21세기 우리 경제의 발전방향이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로부터 탈피하여 튼튼한 소기업에 바탕을 둔 경제와 사회의 통합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 2월 22일 전국대의원총회 강연문)